

# ‘아동 의견 수렴’ 아동정책 만든다

##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참여자 모집

전주시, 아동정책참여단 발대식 가져... 대학생 멘토와 함께 아동권리 모니터링·의견 제안 등 활동

전주시, 영유아·부모 대상 책꾸러미 배부·책놀이 등 진행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는 지난 8일 '2023 아동정책참여단'의 발대식을 갖고 다양한 아동정책참여단 활동 도약을 선포했다.

'2023 아동정책참여단'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8세~13세의 아동 총 40명(10세 이하 26명, 11세 이상 14명)의 대상으로한 아동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관모집과 공개모집을 거쳐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전주시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통한 아동들의 다양한 아동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동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3 아동정책참여단'에는 대학생 멘토들도 통합참여단에 참여·활동하게 되며, 이날 이 시간을 빌어 위촉장 전달과 함께 지난 아동정책참여단의 활동에 대한 영상도 시청했다.

앞으로 참여 아동들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교육을 받고 조를 편성해 '아동권리 모니터링, 불편사항 의견제안 활동, 시정 주요 정책을 배워보는 정책체험 활동'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는 지난 8일 '2023 아동정책참여단'의 발대식을 갖고 다양한 아동정책참여단 활동 도약을 선포했다.

또 아동정책참여단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 매월 자유주제 선정에 따른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눠 개선 방향과 제안 의견을 온라인 밴드에 게시하게 된다. 이외 참여 아동들은 정책체험 워크숍을 통해 '드론, 에너지, 탄소중립' 등 아동 관심도와 교육 효과가 있는 시정 주요 정책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전주시는 제안된 아동들의 의견에 대

하여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를 아동에게 다시 통보함으로써 정책참여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올 연말 1년 간의 정책 참여 활동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우수 참여 활동조에 대해 표창 수여하는 등 활동 성과공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아동이 진정 행복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참여단을 통해 아동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올해로 3회째 인증으로서의 아동정책참여단 운영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영·유아 대상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의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5월 10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주지역 9개 시립도서관에서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 사이의 영유아와 부모 80가족을 대상으로 총 8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평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주말에도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말 프로그램은 생후 25개월부터 48개월 사이의 영유아 및 부모 30가족을 대상으로 건지도서관과 평화도서관에서 각각 5월과 6월 매주 토요일 4주에 걸쳐 '주말 가족과 함께 책 놀이터' 활동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시는 초록우산작은도서관과 인후비전작은도서관 등 2개 공립작은도서관과 함께 하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작은도서관에서도 책 꾸러미를

받고 책놀이를 할 수 있다.

동시에 시는 영유아 누구나 책을 받아 책을 읽는 독서복지 저변을 넓히기 위해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 기간 중 책꾸러미도 배부기로 했다.

가방과 연령별 선정도서 1권, 양말, 사업 전단지 등이 담긴 책 꾸러미는 전주시를 주소로 둔 생후 0개월부터 48개월 사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며, 오는 5월 6일부터 총 700개의 꾸러미가 소진될 때까지 책놀이에 참여하거나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자료실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아이, 책 놀이를 주제로 부모교육특강과 책꾸러미 선정도서의 저자초청특강도 운영한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각 도서관별로 책놀이를 위한 민간의 준비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그림책을 매개로 즐겁게 놀면서 책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 전남지역 독서교육 담당교사들 전주도서관 체험형 연수 실시

전남지역 독서 지도 교사들이 전주에서 1박 2일간 체험하며 다양한 공간 구성과 운영 사례 등 도서관 혁신 우수사례를 배웠다.

전주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남구례교육지원청 독서교육 담당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다양한 공간구성 및 운영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전주도서관 체험형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의 우수한 도서관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사서 등 도서관 관계자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국어행자도서관, 동문헌책도서관, 연화정도서관 등 전주만의 특색이 담긴 특성화도서관과 서화동예술마을, 한옥마을 등 지역문화 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이 1박 2일 동안 전주의 특색있는 도서관을 탐방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전주 도서관 정책사업 소개 △특성화도서관 현장 탐방 △한옥마을을 문화 및 생태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조아록 기자

##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5월 개최

5월 17~21일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서 '정원테라피' 주제

시민들의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가 오는 5월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전문가와 시민이 조성한 다양한 정원과 지역 정원산업의 도약을 이끌 업체들을 만날 수 있는 박람회는 '정원테라피(Goodbye Corona, Goodmorning Flower)'를 주제로 진행되며, 정원산업전과 정원 전시, 정원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서는 정원산업 관련 1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정원 소재를 선보이는 정원산업전을 비롯해, 초청 전문가와 시민작가가 조성한 정원과 산업체 협업정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시민들이 다

양한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식물상담소 △가든힐링부어 △컬러루트 등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가든패션쇼 △자급자족 요리교실 △가든 시네마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박람회에 전년(80여 개 업체 참여)보다 많은 100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전국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전주가 대한민국 정원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5일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꽃잡캠프'와 '가죽화분만들기', '식물꽃다발 만들기', '가족정원조성' 등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누리집(www.jjgcf.kr)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자가 취소할 경우에는 행사장에서 현장 예약 후

/조아록 기자



참여도 가능하다.

최현장 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주시를 넘어 우리나라의 정원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고자 한다"면서 "시민들의 삶이 정원이 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 고성공일 소방교 묘소서 선물 사라져... 유족 고소장 제출

김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성공일 소방교의 묘소에 지인이 두고 간 생일 선물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유족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1일 고성공일의 지인이 대전현충원에 마련된 고인의 묘소에 선물을 선물하고 돌아왔다.

애초 고성공일의 생일인 지난날 16일 선물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생일을 열흘 앞두고 순직해 뒤늦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일 유가족이 묘소에 찾아갔을 때 선물은 사라진 채 텅 빈 상자만 남아있었다.

유가족은 이 사실을 SNS 통해 "비가 온다는 소식에 선물이 젖을까 봐 오빠에게 다녀왔는데, 빈 상자와 편지만 남겨져 있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충원에 문의했지만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썼다.

유가족은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고성공일은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다가 숨졌다. 정부는 고인의 희생과 투철한 사명감을 기리기 위해 육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뉴스시스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실시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일 대성공영주차장에서 전주완전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상반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안전 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유한 전주지역 32개 지역아동센터 중 절반인 16개 지역아

동센터의 통학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구조·보호 표지·보험 가입 등 준수 여부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아록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